

# TOURISM SCOPE

2017. Vol. 39

ISSN 1739-5089

The Official Magazine of the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Huacheng Avenue, Guangzhou, China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The 8<sup>th</sup> General Assembly**

18 Oct - 21 Oct 2017, Tongyeong City, Republic of Korea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THE LAND OF SEA  
TONGYEONG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 Contents

---



## 04 Special

주장강 따라 광저우 도시 산책  
A Stroll in Guangzhou



## 10 K-CLIP

TPO 회원 도시에서 즐기는 한국 문화  
"K-CLIP 2017"



## 16 Concept Travel

도심 속 쉼터, 세계의 공원 6

## 20 TPO People

전주시장 김승수  
전주의 도전, 한국을 넘어  
아시아 문화의 심장으로



## 22 TPO News

TPO 뉴스

## 24 Festival Calendar

TPO 도시 회원 축제 캘린더

---

---

##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TPO)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도시 간 네트워크로서 관광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창설된 관광 분야 국제기구입니다. TPO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회원도시 간 관광산업 정보 교환을 비롯해, 관광 상품 개발, 공동 마케팅 사업, 관광 분야 교육 및 인재 육성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TPO에는 2017년 3월 기준으로 81개 도시 정부와 40개 민간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중 민간 회원은 관광산업과 관련된 협회, 연구 기관, 관광지 마케팅 기관(DMO)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PO는 아시아·태평양 내 도시 관광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주장강 따라 광저우 도시 산책

## A Stroll in Guangzhou

2000여 년 전부터 해상 실크로드로 큰 부를 누린 무역도시 광저우(廣州). 공항을 빠져나오자 산처럼 거대하고 웅장한 고층 빌딩이 예고 없이 시야에 훅 들어왔다. 앞서가는 첨단 도시의 위용에 숨이 턱 막히고 동공이 커졌다. 도심을 가로질러 흐르는 주장강을 따라 천천히 시선을 옮겼다. 영국의 옛 조계지였던 사면다오, 명나라로 시간 여행하기 좋은 사오저우촌. 과거의 시간을 붙들고 사는 앓은뱅이 같은 옛 마을은 소박하고 따스한 기억을 안겨준다. 타박타박 걸으며 반전 같은 도시의 두 얼굴을 만나고 왔다.

에디터 심민아 사진 오충근



### 광저우 여행 정보

위치 화남 지방 최대의 무역 도시로, 주장 삼각주의 복단에 위치해 있다. 면적 7,434㎢ 인구 1,300만 명(2015년 기준) 기후 다습한 아열대 기후로 겨울은 짧고 여름은 길며, 봄은 습하고 비가 많이 온다. 연평균기온은 22.8℃, 연평균 강수량은 1736㎜다. 개요 광동성의 성도로, 행정구역은 8개의 구와 4개의 시로 나뉜다. 2000년의 긴 역사를 가진 도시이며, 동북부와 중부는 산지와 구릉지대이고, 서남부는 평원지대다. 한나라 때 외국 무역을 시작, 명나라 말, 청나라 초에는 유럽 각국으로 교역을 확대해 중국 최대의 무역항으로 번영을 누렸다. 1921년 시로 승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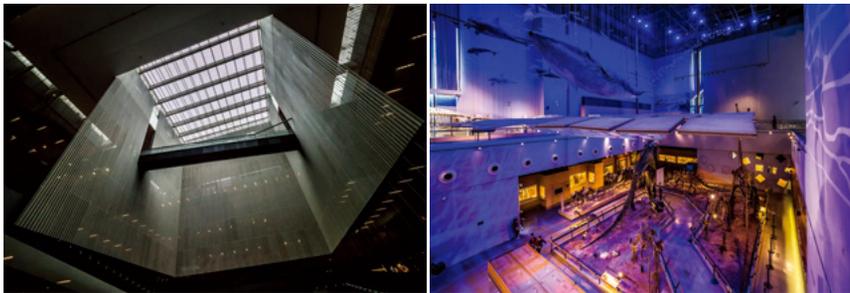
## 광저우 랜드마크 Landmark of Guangzhou

베이징, 상하이와 함께 중국을 대표하는 3대 도시.  
도심을 가로지르는 주장(珠江)강을 중심으로  
광저우 핵심 스폿이 오밀조밀 모여 있다.

### 광저우의 새로운 볼거리 광동성 박물관 Guangdong Museum

주장신청(珠江新城)의 4대 랜드마크 중 하나. 2004년 5월 국제공모전에서 우수한 로코 디자인 건축(Rocco Design Architects)이 설계한 건축물로, 정육면체 장난감 큐브 같기도 하고, 잘 조립된 레고 블록처럼 보이기도 한다. 박물관 특유의 엄숙함과는 거리가 멀다. 온갖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독특한 외관에 반해 천천히 걸어 들어가면, 천장까지 뻗 뚫린 웅장한 로비가 시선을 끈다. 국가 1급 박물관으로 지정된 광동성 박물관은 1959년에 처음 개관해 2010년에 신축됐다. 해상무역이 발달한 광저우의 오랜 역사를 시대별로 만나볼 수 있다. 2만㎡ 규모의 박물관은 역사문화관, 자연사 전시관, 예술관, 일반 전시관, 4개 색선으로 구성, 16만 6000개 이상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역사문화관에선 시대별 무역선 모형을 전시, 중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던 비단과 차, 도자기 등을 볼 수 있다.

주소 2 Zhujiang E Rd, Tianhe Qu, Guangzhou, Guangdong 전화 +86-20-3804-6886 운영시간 09:00~17:00, 월요일 휴관  
입장료 무료(도슨트 신청 10:00, 14:30) 홈페이지 www.gdmuseum.com



### 자하 하디드의 걸작 광저우 오페라하우스 Guangzhou Opera House

동대문 DDP를 설계한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Zaha Hadid)가 지은 건물로 유명하다. 2005년에 착공, 13억 8000만 위안이 투입돼 2010년에 완공됐다. 물 위에 조각돌 2개를 엮은 듯한 비정형 건축물로, 도심 한복판에 불시착한 우주선 같기도 하다.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도는 외관은 유리를 입힌 강철 프레임과 노출 화강암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 상연되는 공연도 수준급. 광저우 오페라하우스는 베이징 국립 공연 예술 센터와 상하이 대극장과 함께 전국 3대 극장 중 하나로 꼽힌다. 최신 기술이 결합된 1800석 규모의 극장과 400석 규모의 강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소 1 Zhujiang W Rd, Tianhe Qu, Guangzhou, Guangdong  
전화 +86-20-3839-2888  
운영시간 10:00~16:30, 월요일 휴관  
홈페이지 www.gzdyj.org



### 광저우의 독보적인 상징물 광저우타워 Canton Tower

광저우 시내 어디서나 하늘을 향해 뾰족 솟은 타워가 보인다. 2010년 10월 개장한 '광저우타워'는 도쿄 스카이트리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타워다. 광둥 지방의 유령식 지명을 따 '캔턴 타워(Canton Tower)'라고 하는데, 회오리치듯 빙글빙글 회전하는 외관이 독특해 광저우의 랜드마크로 통한다. 여인의 잘록한 허리 라인을 닮아 '슬림 웨이스트(Slim Waist)', 중국어로 '샤오만야오(小蛮腰)'라는 귀여운 애칭으로도 불린다. 탑 높이만 450m, 송신탑까지 합하면 600m에 이른다. 107층 전망대는 꼭 가야 할 필수 코스. 광저우시를 360도로 시원하게 조망할 수 있다. 타워 꼭대기 111층에서 타는 관람차 '버블 트램'도 놓치지 말자. 높이 448.8m에서 바라보는 광저우 풍경은 아름답기 그지없다. 7000개의 LED 조명으로 장식돼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답다.

주소 222 Yuejiang W Rd, Haizhu Qu, Guangzhou, Guangdong  
전화 +86-20-8933-8222 운영시간 09:30~22:30 가객 전망대 성인 150위안, 어린이 75위안, 전망대+버블트램 성인 298위안, 어린이 149위안 홈페이지 www.cantontower.com



**프랑스인이 세운 고딕 양식의 대성당 석실성당 Shishi Catholic Church**

광저우는 1843년 개항 이후 한 번도 폐쇄된 적 없는 중국을 대표하는 항구 도시다.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해외 문물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도시이기도 하다. 광저우에서 가장 오래된 예배당인 석실성당(石室聖堂)은 1863년 프랑스 설계사와 중국 건축 장인에 의해 건립, 1888년에 완공됐다. 성당의 정식 명칭은 '석실성심대교당(石室聖心大教堂)'. 건어들 도매시장(批发市场) 거리인 이더루(一德路)에서 유일한 서양식 건축물로 단번에 찾을 수 있을 만큼 눈에 띈다. 문화대혁명 시기인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미사가 금지됐고, 한때 쓰레기 처리장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당시 훼손된 스테인드 글라스와 종교화를 볼 수 없는 게 아쉬울 따름. 하지만 1980년 덩샤오핑(鄧小平)이 집권하면서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고 문화재로 등록됐다. 화강암으로 지어진 고딕 양식의 석조 건축물인 석실성당은 광저우에 있는 8개 성당 중 가장 아름답다고 알려졌다. 건축 및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중국 관광 등급 평가 제도에서 최고점인 AAAAA 등급을 받았다.

운영시간 08:00~17:30 입장료 무료

**광저우 건축양식 '치러우'를 아시나요?**

광저우 건축물의 가장 큰 특징은 '치러우(騎樓)라는 건축양식이다. 중국 남방 건축양식 위에 서양 건축이 결합된 형태로, 상사주 보행거리 등 상업 지구 곳곳에서 눈에 띈다. 상가 1층이 건물 안쪽으로 속 들어가 회랑이 생긴 것인데, 지붕 덕에 뜨거운 햇빛과 비바람을 피할 수 있다. 한국식 차양이라고 보면 된다.



**빌딩 숲에 피어난 로맨틱한 야경 화청광장 Huacheng Avenue**

광저우 최고층인 120층 높이의 저우다푸(周大福), 103층 높이의 IFC(국제금융센터) 등 초고층 빌딩이 숲을 이루는 광저우 최고 번화가. 화청광장(花城广场) 한가운데 서면,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도시 광저우의 면면을 느낄 수 있다. 각기 다른 디자인의 고층 빌딩들이 서로 경쟁하듯 마주 보고 있는데, 그 끝을 올려다보고 있다면 뒷목이 빠근해온다. 세계적인 건축가가 지은 건축물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아 경기대회에 맞춰 조성된 화청광장은 비록 역사는 짧지만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마천루에서 내뿜는 네온사인 불빛이 거리를 밝히고 강바람까지 시원하게 불어와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이토록 아름다운 가족 사당 천자촌 Chen Clan Ancestral Hall**

청나라 진(陳)씨 일가의 서원. 1888년 청나라 광서제 때 착공, 1894년에 완공됐다. 중국의 문화재 평가제도에서 AAAA 등급을 받은 광저우의 대표 건축물로, 기대감을 높이기에 충분하다.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 광저우 일대에 살던 진 씨 가문 자제들이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머물던 곳으로, 시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했다. 쉽게 말해 청나라 시대의 고시원이라고 보면 된다. 광동성 일대 72개 현에 있는 진 씨 가문 사람들이 십시일 반 자금을 모아 당대 최고의 건축가 리취찬(黎巨川)에게 건축을 의뢰한 것. 섬세하고 화려한 지붕 장식에 눈을 떼지 못할 정도. 형형색색 채색된 조각상은 살아 움직이듯 세밀하게 제작돼 마치 경극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하다. 창문과 기둥, 계단, 난간, 벽돌 등 시선이 닿는 어디든 정교한 석조 장식으로 뒤덮여 있다. 1만 3200㎡ 규모의 천자촌은 천천히 구경해도 1시간 이상 걸린다. 정문의 거대한 돌문을 통과하면 6개의 크고 작은 정원이 나오고, 여러 개의 전시실로 걸음이 이어진다.

전화 +86-20-8181-4559 운영시간 08:30~17:30 입장료 10위안 홈페이지 www.gzcjc.com.cn





**유유자적 걷기 좋은 물길 리즈완 荔枝湾**

빨간색 열대 과일 열매 '여지(荔枝, Lychee) 나무가 많이 자라는 물길'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 '리즈완(여지만)'. 생각만 해도 침샘이 고이는 이곳은 광저우 도심에서 시간이 가장 더디게 흐르는 것만 같다. 자동차 대신 물길 위로 나룻배가 지나고, 수풀이 우거진 공원과 어귀를 맞대고 있다. 유유히 흐르는 수로를 따라 고객이 늘어서 있는데, 대부분 개화기에 지어졌다. 건물 1층엔 광저우 특산품을 파는 아가[자기]한 상점이 여행자의 발길을 붙들고, 2층엔 고즈넉한 전통 찻집과 커피숍이 들어서 있다. 수로 위로 아치형 석교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광을 자아낸다.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붉은색 꽃으로 장식한 나룻배가 수로를 한가로이 오가는데, 산뜻한 봄 향기를 가득 풍긴다.

주소 Li Zhi Wan Lu, Liwan Qu, Guangzhou, Guangdong



**맥주공장의 변신 주장파티 珠江琶醍**

옛 맥주 공장 단지가 감각적인 퍼브 거리로 변신했다. 광저우시의 도심재생 프로젝트로 탄생한 주장파티(珠江琶醍)가 그것. 공장이 있던 자리에 유럽풍 바와 퍼브가 들어섰다. 라이브로 노래를 부르는 야외 바도 강변의 낭만을 더한다. 그중 컨템퍼러리 아트 숍 '선 인 스카이(Sun in Sky)'는 단연 눈에 띄는 비주얼. 거대한 콘크리트 기둥 10여 개가 연결된 형태인데, 기둥마다 각기 다른 콘셉트의 원형 룸으로 꾸몄다. 곳곳이 녹슬고 페인트칠이 벗겨졌지만, 그마저 예술적 가치로 승화시켰다. 벽면 전체를 와인 랩으로 두른 근사한 와인 바부터 캐주얼한 맥주 퍼브, 액자로 장식된 레스토랑, 디자이너 숍 등 구석구석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주소 Yuejiang W Rd, Haizhu Qu, Guangzhou, Guangdong 전화 +86-20-8420-2521

**광저우 최고의 쇼핑몰 타이쿠후이 Taikoo Hui**

광저우에서 가장 핫하고 럭셔리한 쇼핑몰. 고층 빌딩과 대형 쇼핑몰이 밀집한 텐허(天河)구에서 단연 돋보인다. 13만 8000m<sup>2</sup> 면적에 180여 개 브랜드, 70개 이상의 식음료 매장이 입점한 타이쿠후이(太古汇)에서는 정신을 놓았다간 길을 잃기 십상이다.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등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숍부터 유니클로 같은 SPA 브랜드, 각종 수입 식품과 주류 등을 파는 대형 슈퍼마켓 '올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푸드코트엔 한류 열풍을 반영하듯 CJ푸드빌의 한식 브랜드 '비비고'와 베이커리 '뚜레쥬르' 등이 입점해 있다.

주소 383 Tianhe Rd, Tianhe Qu, Guangzhou, Guangdong  
전화 +86-20-3808-8000  
운영시간 10:00~22:00  
홈페이지 www.taikoohui.com



광저우의 명동, 베이징루  
**Beijing Road**

베이징에 왕푸징 거리가 있다면,  
 광저우엔 베이징루(北京路)가 있다.  
 400m가 넘는 보행자 전용 거리에 대형 백화점과  
 해외 유명 브랜드 매장이 빽빽이 들어서 있다.  
 차 없는 거리로 지정돼 쇼핑에만 올인할 수 있다.



**아톰 캐릭터 숍**  
**아스트로 보이** Astro Boy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누린 추억의 일본 애니메이션, 우주소년 아톰. 1965년 말 '아스트로 보이(Astro Boy)'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방영됐다. 이곳에선 빼죽 솟은 앞머리에 빨간색 장화를 신은 꼬마 로봇 아톰을 담은 다양한 캐릭터 제품을 만날 수 있다. 오픈형 매장인 1층에선 캐릭터 티셔츠와 아톰 미니어처를 디스플레이해 발길을 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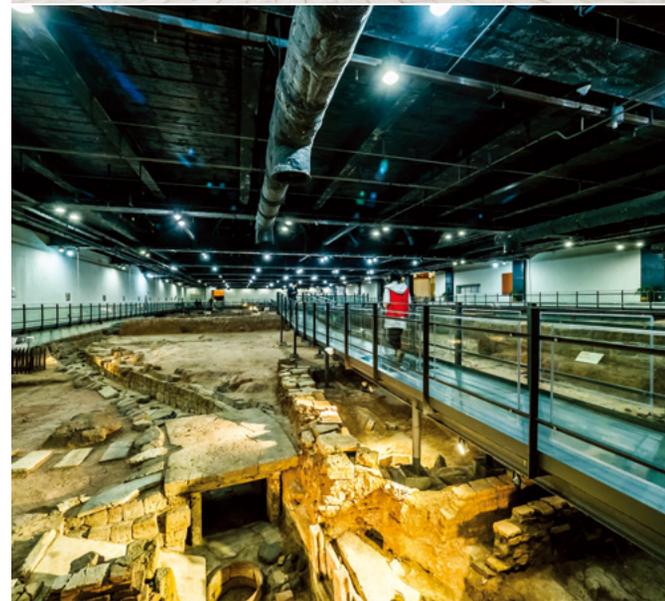
계단을 따라 올라서면, 규모가 제법 큰 2층 매장이 나온다. 테즈카 프로덕션(Tezuka Production)과 캐릭터 제휴를 맺은 브랜드숍으로, 아톰 미니어라면 눈 돌아갈 아이템으로 가득하다.



**옛 왕궁 위에 서다** 남월왕궁박물관 南越王宫博物馆

기원전 203년에 창건, 기원전 111년에 멸망한 광둥 지역의 고대 왕국 남월국. 5대에 걸쳐 93년간 광둥성을 중심으로 베트남 북부까지 세력을 떨쳤다. 남월국의 수도가 광저우였고, 당시의 왕궁 터가 1995년에 발견됐다. 왕궁 발굴 현장의 일부를 남월왕궁박물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것. 현존하는 왕궁 정원 중 가장 역사가 깊은 유적이라 더욱 의미 있다. 유리 다리를 따라 걸으며, 발아래 옛 유적의 잔해를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다.

주소 316 Zhongshan 4th Rd, Yuexiu Qu, Guangzhou, Guangdong  
 전화 +86-20-8389-6501 운영시간 09:00~17:00(17:00까지 입장) 입장료 무료





**소시지의 화려한 변신 라오창샤 다상창 老长沙大香肠**

베이징루는 길거리 음식 천국이다. 입소문난 맛집이 즐비하다. 기웃거리며 한입 씹만 먹어도 배가 터질 지경. 라오창샤(老长沙)는 줄 서서 먹는 맛집 중에 웨이팅이 가장 길다. 가게 입구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대형 소시지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한입 먹어보라며 여행자를 유혹한다. '얼마나 맛있길래' 궁금중에 줄을 선 이가 한두 명이 아니다. 한국에서 먹던 평범한 소시지가 아니다. 소시지에 칼집을 내 기름에 튀긴 것. 겉은 바삭하고 속엔 육즙이 가득해 무척 부드럽다. 언뜻 나뭇가지 같기도 하고, 백제시대의 칼 '칠지도'를 닮기도 했다. 칼집을 내 먹기 편하고 속까지 골고루 익었다. 소시지 표면에 고춧가루를 듬뿍 뿌려 매콤한 맛이 입맛을 사로잡는다. 중국 소시지, 상창(香肠)은 향신료가 첨가돼 향이 강하고 짠 편이다.

가격 1개 13위안

**가장 중국스러운 거리**

**상사주 보행거리** Shangxiaju Pedestrian Shopping Street

자꾸만 걷고 싶은 길이 있다. 천천히 걷기 좋은 상하구 보행거리(上下九步行街)가 그것. 베이징루와 비슷한 인상을 준다. 하지만 해외 수입 브랜드보다 중국 고유 브랜드가 많아 세련되기보다 정겹다. 대형 말 조형물이 있는 '상하구 광장'을 중심으로 거리 양옆으로 크고 작은 상점이 길게 늘어서 있다. 192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건축물이 즐비한데, 1999년 광저우시 문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세월이 켜켜이 쌓인 건물들은 대부분 2~3층 높이. 1층은 패션 상점이나 전통 음식점, 2층은 사람이 사는 가정집으로 쓰인다. 창문 난간에 아슬아슬 빨래를 걸어두거나 삼삼오오 모여 제기를 차는 중국인의 일상을 만날 수 있다. 쉬이 지나칠 수 없는 중국스러운 풍경에 미소가 지어진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 중국어 간판도 큰 볼거리. 지하철 1호선 장수로(长寿路) 역에서 내려 D2 출구로 나가면 된다.



**중국의 김밥천국 전궁푸 真功夫**

미국에 맥도널드, 한국에 김밥천국이 있다면 중국엔 전궁푸(真功夫)가 있다. 중국의 토종 패스트푸드인 전궁푸는 바쁜 광저우 직장인들이 간단하게 한 끼 해결하기 위해 즐겨 찾는다. 쿡후하는 이소룡 캐릭터가 그려진 간판이 멀리서도 눈에 띈다. 주문하자마자 눈 깜짝할 사이 메뉴가 나오는데, 속도가 LTE급이다. 보온 기능이 있는 작은 술에 갓 지은 쌀밥과 따끈한 국물, 볶음 요리, 채소 찜 등이 쟁반에 담겨 나오는데,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돈다. 찌거나 끓이는 건강한 조리법이 대부분이라 전궁푸의 음식은 대체로 기름지지 않다. 중국 전통 요리를 먹고 싶지만 혼자서 레스토랑을 찾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 이곳이 제격.

가격 세트 메뉴 21~37.5위안



**고소한 스틱형 빵, 크로강슈 미히미히 Mihimihi**

거리에서 파는 빵이지만, 웬만한 베이커리와 견주어도 수준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오로지 한 가지 빵 '크로강슈'만 파는 테이크아웃 전문점. 주문하는 줄과 빵을 받아가는 줄이 따로 있으니 알아둘 것. 주문과 동시에 빵 안에 크림을 콕콕 눌러 담아주는데, 눅눅하지 않고 바삭한 식감이 살아 있다. 고소한 버터 향의 오리지널을 비롯해 딸기, 초콜릿, 말차 등 4가지 맛을 선보인다. 아몬드와 소보로가 콕콕 박혀 있어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커스터드 크림이 들어있다. 한입 물면 크림이 입가에 잔뜩 묻을 정도로 속을 아낌없이 채웠다.

가격 1개 12위안



# TPO 회원 도시에서 즐기는 한국 문화 K-CLIP 2017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이하 TPO)와 김해시가 주최하고 부산, 전주, 익산, 전라북도가 후원하는 'K-CLIP 2017'이 7월 31일부터 8월 10일까지 김해와 후원도시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전 세계 젊은이들은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김해, 부산, 전주, 익산 등 한국 곳곳을 둘러보며 한국 고유의 아름다움과 매력에 푹 빠져들었다.

에디터 심민아 사진 오충근, 이근수



## 'K-CLIP'이란?

TPO는 '관광분야인재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1~2회 회원도시에서 '클립(CLIP)'을 개최, 대학생들에게 외국문화를 체험하며 타문화에 대한 지식과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K-CLIP'이란 이름으로 김해시를 비롯해 한국의 회원도시에서 개최됐다. 한국에 관심이 있는 전 세계 젊은이들이 신청했지만, 안타깝게도 선착순 30명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Korea Through My Eyes'라는 주제로 기획된 'K-CLIP 2017'은 문화강좌, 문화체험, 시티투어, 팀 프로젝트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개최 도시 김해시의 역사와 전통을 이해하고, 전통놀이와 한지공예를 체험하는 등 한국문화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들었다. 김해, 부산, 전주, 익산을 방문해 각 지역의 문화유적 및 관광 명소를 시찰했다. 참가자들은 5인 1조로 팀을 이뤄 프로젝트를 수행, 한국에서 느낀 점을 공유하기 위해 PPT나 UCC를 제작, 연극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최우수팀에게는 특별상이 수여됐다.



알에서 태어난 김수로왕의 발자취를 따라 흥미로운 시간 여행을 하고, 신어산 즐기 분산성 따라 스카이 투어를 즐길 수 있다. 낮에는 테마파크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밤에는 천체망원경으로 총총히 빛나는 금성과 목성을 볼 수 있는 곳, 지금 김해로 떠나보자.

# 김해



### 오감만족 체험형 놀이터 김해 가야테마파크

제4의 제국, 가야의 역사를 놀이, 체험, 전시를 통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오감 체험형 테마파크. 2015년 5월에 김해시 어방동 분산 정상부 일원, 17만 9000㎡(약 5만 4000평) 규모의 부지에 조성되었다. 왕의 집무실인 태극전엔 김수로왕과 허왕후 상이 사실감 있게 재현되어 있고, 용머리를 한 쌍어와 거대한 크기의 신령스러운 거북도 전시되어 있다. 그 뒤론 김수로왕의 처소인 가락정전이 있고, 오른쪽에 마련된 허왕후 스토리관엔 허왕후가 인도에서 가야까지 온 신행길의 경로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가야테마체험(활 만들기, 활쏘기 등), 공예체험(목공예, 매듭, 전통 연 만들기), 도자기체험(물레 돌리기, 화분만들기), 철기체험(주조 관람, 모종삽 만들기 등), 복식체험(가야 전통의상 입기) 등의 체험 섹션은 흥미로운 경험과 함께 아이들의 학습 공간으로도 그만이다. 가야무사 어드벤처는 즐겁게 뛰놀며 수로왕의 용기와 기상을 체험할 수 있는 친환경 어드벤처 놀이터. 시원한 바닥 분수를 중심으로 대형 가마무사 놀이대와 네트놀이대, 롤러 슬라이드 등 흥미로운 놀이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주소 경남 김해시 가야테마길 161(어방동) 전화 +82-55-340-7900  
 운영시간 여름(3~10월) 09:00~22:00, 겨울(11~2월) 09:00~20:00  
 입장료 어른 5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3000원  
 홈페이지 www.gaya-park.com



오감만족 테마파크 '김해 가야테마파크'엔 아이들이 맘껏 뛰놀며 수로왕의 용기와 기상을 체험할 수 있는 친환경 어드벤처 놀이터가 있다.



### 신나는 어드벤처 세상 가야랜드

가야테마파크 건너편에 자리한 어드벤처 놀이동산. 양쪽으로 10여 개의 놀이기구가 모여 있는 가야랜드 엔젤파크와 다양한 종류의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가야랜드 달빛야영장으로 나뉘어 있다. 멀리서도 한 번에 시선을 사로잡는 엔젤풍차(대관람차)와 보기만 해도 짜릿한 콘돌 스카이를 비롯해 바람을 가르며 하늘을 나는 스카이라이드와 스틸 만점의 대형 그네 엔젤스윙 등이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신어산의 맑은 공기를 맡으며 여유로운 하룻밤을 보내고 싶다면 달빛야영장을 추천. 오토캠핑장과 백패킹야영장, 글램핑, 카라반 등 130여 개의 캠핑존이 마련되어 있다.

가야랜드 엔젤파크 주소 경남 김해시 인제로 368(삼방동 1391-2)  
 전화 +82-55-346-6000  
 운영시간 10:00~18:00 입장료 3000원, BIG5 1만 2000원  
 홈페이지 gaya-land.com  
 가야랜드 달빛야영장 주소 경남 김해시 신어산길 67(삼방동 826)  
 전화 +82-55-332-9100 홈페이지 moonlightcamp.co.kr



### 밤하늘을 수놓는 별들의 잔치 김해천문대

밀레니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2002년 2월 1일, 개관한 영남 지역 유일의 시민 천문대. 김해시 내외동에서 동쪽 산을 보면 마치 산이 알을 품은 듯한 모습의 건물이 보이는데, 이곳이 바로 김해천문대다. 천문대는 크게 전시동과 관측동으로 나뉜다. 이 중 전시동에선 지구의 공전과 자전, 사계절 별자리, 행성체중계, 천체사진 감상, 망원경의 구조, 미래의 우주도시 모형 등을 살펴볼 수 있고, 지름 8m의 돔 스크린을 통해 실제와 거의 흡사한 별자리를 관찰할 수 있다. 김해 시내를 한눈에 담고 싶다면 전망대에 오를 것. 은색의 돔형 전시실 옆으로 김해시가 시원하게 펼쳐진다. 특히 밤에 오르면 반짝이는 별과 함께 황홀한 야경이 펼쳐져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주소 경남 김해시 가야테마길 254(어방동 산 2-80)  
 전화 +82-55-337-3785 운영시간 14:00~22:00 매주 월요일 휴무  
 입장료 전시실 무료 가상별자리 프로그램 어른 30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500원 천체관측 프로그램 어른 4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2500원  
 홈페이지 ast.ghdc.or.kr





**김해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국립김해박물관**

고대국가 중 하나인 가야의 문화유산을 집대성하기 위해 1998년 7월 29일 개관한 박물관. 가야의 건국 설화가 깃든 김해시 구지봉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가야의 문화재는 기본, 부산·경남 지역의 선사시대 문화와 가야의 성장기반이 된 변한의 문화유산도 전시되어 있다. 전시실은 1, 2층으로 되어 있으며 '가야로 가는 길'을 주제로 한 1층엔 낙동강 하류역의 선사문화와 가야의 여명기, 가야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알 수 있는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가야사람들의 삶'을 주제로 한 2층엔 수레바퀴 모양 토기나 굽다리 접시 등 부드럽고 아름다운 가야 토기와 철기시대 유물(갑옷과 투구), 그리고 해상무역이 활발했던 가야 시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배 모양 토기나 청동 세발솥 등이 전시되어 있다. 박물관 한편엔 어린이를 위한 가야누리도 마련되어 있다.

주소 경남 김해시 가야의 길 190(구산동 232) 전화 +82-55-320-6800  
 운영시간 화~금요일 09:00~18:00, 토·일·공휴일 09:00~19:00  
 입장료 무료 홈페이지 gimhae.museum.go.kr

가야의 문화유산을 한눈에 보고 싶다면 '국립김해박물관'이 제격이다. 부드럽고 아름다운 곡선의 가야 토기를 만나보자.



**수로왕과 허황후의 신화가 어린 신어산**

높이 630m. 수로왕과 허황옥 왕비의 신화가 어린 성산(聖山). 북동쪽으로 낙동강이 굽이돌아 흐르고, 남쪽에는 광활한 김해평야가 펼쳐져 있다. 사시사철 수려한 경관과 등산로 곳곳에 자리한 기암괴석이 산행의 묘미를 더한다. 특히 신어산 자락, 울창한 숲과 암석이 조화를 이루며 시원스럽게 폭포수가 쏟아져 내려오는 장척계곡이 압권. 한여름에도 1분 이상 발을 담그기 힘들 만큼 물이 차고 맑아 더위를 피해 이곳을 찾는 이들이 인산인해를 이룬다. 부드럽고 담백한 백숙으로 몸보신을 할 수 있는 장척백숙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니 배를 채우며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기 좋다.



**김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최고의 뷰 포인트 분산성**

분산 정상에 둘레 약 900m, 폭 8m 정도로 쌓은 성벽. 사적 제66호로 낙동강 하류의 드넓은 평야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산꼭대기에 있는 평탄한 지형을 둘러서 그 주위에 남북으로 긴 타원형을 이루고 있는데, 수직에 가까운 석벽의 높이는 약 3~4m에 이른다. 이곳에 세워진 '정국군박공위축성사적비'를 보면, 조선 초기에 박위가 고산성(古山城)에 의거해 수축했으며, 임진왜란 때 무너진 것을 1871년(고종 8년)에 다시 현재의 성벽으로 고쳐 지었다고 적혀 있다. 분산성으로 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먼저 해은사(海恩寺)를 찾는 것. 해은사 옆길로 조금만 내려가면 김해시 전경이 시원하게 펼쳐지면서 견고하게 쌓은 성벽이 길게 이어진다.

주소 경남 김해시 가야로 405 번안길 210-162



**가야국의 시조 김수로왕의 능침 수로왕릉**

앞에서 태어나 '수로'라는 이름을 얻은 수로왕은 김해 김씨, 김해 허씨, 인천 이씨의 시조이며 가락국을 창건한 왕. 수로왕릉은 김수로왕의 영혼을 모신 능침으로 '납릉'으로도 불린다. 왕릉 앞 납릉정 문의 화반 위에는 석탑을 가운데 두고 2마리의 물고기가 마주 보고 있는 문양(신어상 또는 쌍어문)이 새겨져 있다. 왕릉을 보고 왼쪽에 있는 비석의 이수에는 태양문이 새겨져 있는데, 이 모두가 수로왕비의 나라인 인도 아요디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 한다. 가락국(AD 42~532년)의 시조대왕 무덤인 수로왕릉은 김해의 상징적 문화유적. 웅장한 스케일과 안정감 있는 배치, 군더더기 없이 단아한 건물이 인상적이다.

주소 경남 김해시 가락로 93번길 26  
 전화 +82-55-330-7313



# 익산

백제 무왕 시대에 조성된 왕궁 터인 '익산 왕궁리 유적', 백제의 건축 기술이 녹아든 '익산 미륵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에서 고대 동아시아의 문명을 엿보았다.



### 백제 시대 왕궁 터 익산 왕궁리 유적

백제 30대 무왕(武王)이 천도해 건립한 왕궁 터. 사적 제408호인 익산 왕궁리 유적은 면적 21만 6862㎡ 규모로, 1만 1000여 점의 유물이 발굴됐다. 1989년부터 현재까지 발굴 조사를 진행, 백제 말경부터 통일신라 초기, 통일신라 말기 등 세 시기에 걸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통일 신라 초기엔 사찰로 용도가 변경, 실제 석탑과 금당지, 강당지가 발견됐다. 특히 국보 제239호인 '익산 왕궁리 5층 석탑'이 가장 큰 볼거리. 석탑 안에서 금제금강경판과 사리병, 불상, 옥 등이 발굴돼 국보 123호로 지정됐다. 최근 왕궁 부엌 터에서 불에 탄 흙과 다량의 숯, 철제 솥과 향아리 등이 나와 화제가 됐다. 더 많은 유물이 보고 싶다면 '왕궁리유적전시관'으로 향하자. 상설 전시관에선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화장실에서 사용하던 뒤처리용 막대와 명문이 새겨진 기와 등 흥미로운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주소 전북 익산시 왕궁면 공성로 666 전화 +82-63-859-4631  
 운영시간 09:00~18:00 입장료 무료  
 홈페이지 www.iksan.go.kr/wg

익산 왕궁리 5층 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서 가장 큰 볼거리다. 왕궁 터에서 발견된 백제 유물들은 흥미롭기 그지없다.



### 백제 불교미술의 정수를 맛보다 미륵사지유물전시관

안타깝게도 현재 미륵사지 석탑은 해체 후 복원 작업이 한창이라 바닥에 있는 기둥만 볼 수 있다. 새로 단장한 동탑이 어느 정도 위안을 주지만,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에 가면 미륵사에서 출토된 1만 9000여 점의 유물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입구에 들어서면 미륵사의 1/50 축소 모형이 시선을 끄는데, 미륵을 모신 금당과 탑을 각각 3곳에 세운 것이 독특하다. 특히 2009년 석탑을 해체할 때 중심 기둥에서 나온 '사리장엄'을 눈여겨볼 것. 그중 금으로 제작된 '사리봉영기'에는 미륵사 창건 배경과 석탑 건립 연대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사리장엄에서 나온 3층의 사리기와 다양한 공양품도 백제의 빼어난 금속 공예 기술을 여실히 보여준다. 사리기는 사리를 담은 그릇으로, 석탑 심주 정중앙에 안치되어 있다. 사리외호 안에 사리내호, 그 안에 유리병이 들어 있는데, 마치 마트료시카처럼 3중으로 보관, 그 때문에 사리가 온전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금당지 복원 회랑에서 출토된 보물 제1753호 '금동향로는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출토돼 눈길을 끈다.

주소 전북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로 362  
 전화 +82-63-830-0900  
 운영시간 09:00~18:00, 월요일 휴관  
 입장료 무료 홈페이지 www.mireuksaji.org



### 백제의 건축 기술로 만든 동아시아 최대 가람

#### 익산 미륵사지

미륵산 남쪽 자락에 자리한 사적 제150호. 지난해 익산 왕궁리 유적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601년 백제 무왕 때 세워진 국가 사찰 미륵사는 <삼국유사>에 따르면 왕후의 청으로 창건됐다고 한다. 특히 국보 제11호인 '미륵사지 석탑'으로 유명한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석탑으로 알려져 있다. 화강암으로 제작된 이 석탑은 서쪽 면과 남쪽 면이 거의 무너져 6층밖에 남지 않았다. 목탑이 지배적이던 당시에 무왕은 삼국 최초로 석탑을 세워 백제의 위상을 높였고, 동양 최대의 절, 미륵사를 세웠다. 미륵사지는 통일신라와 고려 시대를 거쳐 조선 시대 초까지 유지되다 17세기 임진왜란 이후 폐사돼 현재 석탑만이 외로이 남아 있다. 1990년부터 발굴 조사 중인데, 1998년 3탑, 3금당의 독특한 가람 구조가 발견, 백제의 건축과 공예 등 최고의 기술로 완성된 건축물이다.

주소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암리 32-2 전화 +82-63-290-6784  
 운영시간 09:00~18:00, 월요일 휴관 입장료 무료



전주는 차 없이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여행지가 곳곳에 있고, 길거리 음식으로 배를 채워도 아쉽지 않을 만큼 진귀한 먹거리가 넘쳐난다. 전주에서 꼭 해야 할 버킷 리스트.

# 전주



### 전주부성 옛길에서 시간 여행하기

전주시의 옛 이름 전주부(全州府). 과거 전주부성 4대문 안의 숨어 있는 옛길을 따라 걸었다. 왜구의 침입과 자연재해 등으로 현재 풍남문을 제외하고 성벽과 성문은 남아 있지 않지만, 골목마다 역사의 흔적이 스며 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시작된 '전주부성 옛길' 코스는 북문이 있던 오거리문화광장을 지나 조선시대에 사신과 관리가 머물렀던 풍패지관(객사), 그리고 바느질 골목으로 이어진다. 재봉틀 소리가 들리는 비좁은 바느질 골목은 과거 남부시장에서 남부배차장으로 향하던 사람들이 바글거리던 변화기였다. 바느질 골목을 빠져 나오자 약전거리와 차이나거리에 이른다. 근대문화유산 '중국어인 포목상점(등록문화재 제174호)'과 '박다옥(등록문화재 제173호)'이 빛바랜 기억을 안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 차이나거리에서 동문 방향을 따라 일직선으로 쪽 걸으면 동문에 술거리에 닿는다. 추억이 켜켜이 쌓인 '삼양다방'은 1952년에 문을 연 국내 최고령 다방으로 과거 문인과 예술가 등 인텔리 층이 전시와 시 낭송회를 열던 곳이다.



### 한복 입고 한옥마을 걷기

전주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는 한옥이 웅기종기 모여 있는 고즈넉한 한옥마을. 최근 새로운 풍경이 더해졌다.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여행자들이 한옥마을 곳곳을 거닐기 시작한 것. 한옥마을의 역사는 1910년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앙동 일대에서 부를 축적한 일본인에 대한 반발로 교동 일대에 한옥을 지은 것이 시초다. 한복을 입는 순간 과거의 어느 시간으로 타임슬립한다. 한옥마을에서 전주의 멋과 풍류를 제대로 느끼려면, 기와집이 켜켜이 들어앉은 '경기전'이 제격.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만난다는 들뜬 마음을 안고 홍살문을 지나 내부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울창한 나무로 뒤덮인 고색창연한 경기전 안은 한복 입은 이들로 가득하다.

**경기전 주소**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 102 **전화** +82-63-287-1330  
**운영시간** 11~2월 09:00~18:00, 3~5월, 9~10월 09:00~19:00,  
 6~8월 09:00~20:00 **입장료** 성인 3000원, 청소년 2000원  
**전주한옥마을 한복길 주소** 전주시 완산구 경기전길 120  
**전화** +82-63-277-1839 **한복 대여비** 5000원



### 전주식 술 문화 즐기기

전주에 있는 8개의 전주막걸리 골목 중 가장 오래된 '삼천동 막걸리골목'. 삼천동에 현채 30여 개의 막걸리집이 형성, 해지기 전부터 술꾼들이 막걸리 냄새를 맡고 하나둘 모여든다. 그중 15년째 운영 중인 '용진집'은 입구부터 장사전을 이룬다. 막걸리 한 주전자씩을 시키자 꼬막찜, 편육, 두부김치, 고등어조림, 콩치구이 등 20여 가지 안주가 푸짐하게 나온다. 새로운 안주를 맛보고 싶다면, 주전자 막걸리를 더 주문할 것.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웅성한 대접을 받고 나니 술맛도 꿀맛이다. 막걸리로 얼큰해진 취객들은 2차로 가맥집을 가는 게 코스. 출판사와 인쇄소가 즐비한 출판거리, 경원동에 가면 가맥집이 모여 있다. '가맥'은 '가게 맥주'의 줄임말로, 흥이 오른 취객들이 동네 슈퍼마켓에 삼삼오오 앉아 안주와 함께 맥주를 마시는 것. 전일슈퍼는 편한 추리닝에 슬리퍼 차림으로 가서 먹기 딱 좋다. 안주는 황태와 감포징어구이뿐. 약한 연탄불에 포슬포슬하게 구워내는데, 생선살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다. 여름이면 '가맥축제'가 열리는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룬다.

**용진집 주소** 전주시 완산구 거마산로 14 **전화** +82-63-224-8164  
**가격** 막걸리 1주전자 2만 원  
**전일슈퍼 주소** 전주시 완산구 현무2길 16 **전화** +82-63-284-0793



전주식 술문화를 즐기려면 삼천동 막걸리골목으로 향할 것. 막걸리 한 주전자에 20여 가지 안주가 푸짐하게 나온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났다. 당시 40만 명이던 부산 인구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피란민까지 합해 100만 명이 넘었다. 먹고살 길이 막막했던 피란민들은 물도 전기도 없는 산으로 내몰렸고, 급기야 공동묘지에 집을 짓고 살았다. 67년 전, 피란민의 시선으로 부산을 걸었다.

# 부산



### 임시수도 부산의 역사 임시수도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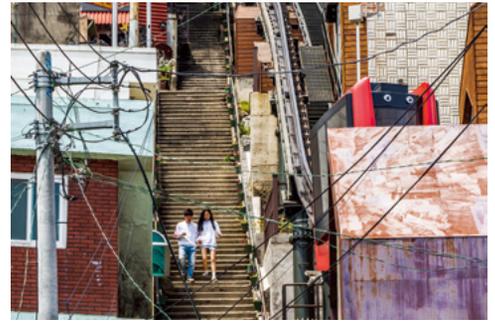
1925년 경남도청이 진주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1926년 8월 경남도지사 관사로 쓰였다. 1950년 전쟁 발발로 부산이 3년간 임시수도가 됐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거쳐하던 역사 깊은 곳이다. 대통령의 유물이 있는 집무실과 전쟁 당시 외교 업무가 이루어지던 응접실, 이승만 대통령과 프란체스카 여사가 머물던 내실 등 당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살렸다. 대통령 관저 뒤편에 있던 옛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관사는 2012년 리모델링을 거쳐 전시관으로 탈바꿈했다. 단층 벽돌조 건물로, 전쟁 당시 부산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현재 부산시 기념물 제 53호로 지정된 임시수도기념관은 야외 정원이 운치를 더한다.

주소 부산 서구 임시수도기념로 45 전화 +82-51-244-6345  
 운영시간 09:00~18:00,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09:00~20:00, 월요일 휴관  
 입장료 무료 홈페이지 <http://museum.busan.go.kr/monument>



### 산자와 죽은 자의 동네 아미동 비석문화마을

전쟁 당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피란민이 100만 명에 육박했고, 오갈 곳이 없던 이들은 동사무소에서 적어주는 쪽지를 들고 주소지를 따라 산 아래 아미동 공동묘지로 향했다. 두 평 남짓한 무덤 위에 집을 짓고 열댓 명 되는 가족이 음악을 짓고 살았다. 거미줄처럼 연결된 골목을 휘젓고 다니다 보면, 이곳이 100여 년 전 공동묘지였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담장 디딤돌로 사용된 비석, 골목 모퉁이에 놓인 장식용 석재 등을 발견하는 것도 흥미롭다. 골목 구석구석 숨은 그림처럼 콕콕 박혀 있는 비석을 발견하려면, 부산관광공사가 무료로 운영하는 부산 원도심 스토리 투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 산복도로를 잇는 아찔한 계단 168계단

말 그대로 168개 층계로 이루어진 계단. 부산항에서 산복도로를 잇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과거 부산항에 배가 들어오면, 일거리를 얻기 위해 이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고. 건물로 따지면 6층 높이쯤 되는데, 보기만 해도 현기증이 난다. 2016년 5월 계단 옆으로 길이 60m의 모노레일이 설치돼 주민들의 고마운 두 발이 되어준다. 최대 경사 42도, 분당 35m의 속도로 느릿느릿 움직인다. 모노레일을 타고 오르다 보면, 근사한 풍경에 절로 감탄이 쏟아진다. 산복도로를 따라 촘촘히 들어선 색색의 집들과 저 멀리 그림 같은 부산항이 한눈에 잡힌다.

주소 부산 동구 영초길 191번길 모노레일 운영시간 07:00~20:00



### 부산 최고의 근대 건축물 백제병원(현 브라운핸즈)

1922년 부산 최초의 근대식 개인종합병원, 백제병원이 개원했다. 당시 단층 건물만 즐비하던 부산에서 5층 높이의 벽돌 건물은 단연 눈에 띄었다. 게다가 서양 의료진이 포진해 '부산 3대 병원'으로 명성이 자자했다. 하지만 행려병 환자 시신을 인체 표본으로 만든 것이 알려지면서 손님이 뚝 끊기게 된 것. 잇단 괴소문과 경영 악화로 결국 병원은 폐업했고 중국인 손에 건물이 넘어갔다. 이후 중식당, 일본인 장교 숙소, 치안 사무소, 예식장 등을 거쳐 근사한 인더스트리얼 콘셉트의 카페로 재탄생한 것. 녹슨 철문, 이가 빠진 타일 등 근대 건축물 특유의 분위기를 그대로 살렸다. 피란민장한 역사와 이야기가 카페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주소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9번길 16 전화 +82-51-464-0332  
 가격 에스프레소 4500원, 아메리카노 4800원, 오렌지아이드 6800원  
 홈페이지 [www.brownhands.co.kr](http://www.brownhands.co.kr)

# 도심 속 쉼터 세계의 공원 6

현지인들에게는 아늑한 휴식처가, 여행자들에게는 특별한 관광지가 되어주는 공원. 세계 각국의 아름다운 공원을 소개한다.

에디터 고아라 사진 <AB-ROAD> 자료실





**광저우**  
웨슈공원 越秀公園

웨슈산을 중심으로 조성된 광저우 최초의 공원. 웨슈공원(越秀公園)은 7개의 크고 작은 산과 냇물을 할 수 있는 3개의 인공 호수로 이루어져 있다. 총면적 93만㎡로 규모가 워낙 커 공원을 거니는 것만으로도 또 하나의 여행이 된다. 웨슈산 꼭대기에는 높이 28m로 광동성 최대 규모의 누각식 건축물 '전하이러우(鎮海樓)'가 있다. 1380년에 세운 감시탑으로 지금은 '광저우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5층 꼭대기에 올라서면 고층 빌딩이 숲을 이룬 광저우 마천루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전하이러우 꼭대기에는 뾰족한 기념비 하나가 자리하고 있는데, 중국 민족주의 혁명 지도자 쑨원(孫文, 손중산)을 기리기 위해 세운 중산기념비다. 명나라 시대인 1380년대에 축조된 옛 성벽이 있어 공원을 천천히 걷다 보면 과거로 시간 여행하는 기분이 든다. 1000m 길이의 성벽이 공원 산책로를 따라 구불구불 이어져 있어 고즈넉한 분위기를 더한다. 광저우 시의 상징인 양(羊)도 만날 수 있다. 공원의 남수호 인근에는 전설 속 다섯 마리의 양이 조각된 거대한 석상이 있는데, 높이가 무려 11m나 된다. 광저우의 다섯 양들은 풍요를 상징해 이 석상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하는 이들이 많다.

찾아가는 법 지하철 2호선 웨슈공원역



**타이베이**  
예류지질공원 野柳地質公園

타이베이 북부 해안에 위치한 지질공원. 해수욕장과 온천, 기암괴석으로 유명한 관광 도시 예류에 있다. 입구에 들어서면 희귀한 모양의 바위들이 모여 있는 해안가가 펼쳐져 예류 관광의 필수 코스로 꼽힌다. 이곳의 바위들은 세계 지질학계에서 중요한 해양 생태계 자원으로 평가받는 한편, 푸른 바다와 침식된 산호 조각물들이 함께 어우러져 자연이 그려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선사한다. 예류지질공원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뉘는데, 공원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선상암 군락이다. 바위 하나하나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버섯이 하늘을 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중 가장 인기 있는 바위는 고대 이집트 왕비인 네페르티티의 두상을 닮아 이름 붙여진 '여왕 바위'다. 높게 들어 올린 머리와 가려진 목선, 코와 입 자리가 선명하게 느껴진다. '춧대 바위'는 흔히 볼 수 없는 독특한 해식 경관으로 춧돌 모양 암석층이 인상적이다. 그 밖에도 크고 작은 구멍이 가득한 '벌집 바위', 네모반듯한 눈두렁 모양으로 놓인 '바둑판 바위', 울퉁불퉁한 모습을 한 '생강 바위' 등 특이한 모양의 바위들이 많다. 곳의 끝자락에는 바다를 마주한 휴게소도 마련되어 있다.

찾아가는 법 진산행 172번 버스 예류지질공원 입구역

 **쿠알라룸푸르**  
KLCC Park

말레이시아의 상징인 쿠알라룸푸르의 쌍둥이 빌딩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바로 앞에 자리한 공원. 쿠알라룸푸르 중심에 20만㎡의 규모로 조성된 KLCC(Kulala Lumpur City Center) 공원은 고층 건물에 둘러싸여 있어 '도심 속 오아시스'라 불린다. 공원 안으로 들어서면 연못과 2000여 그루의 나무로 이루어진 울창한 숲에 다양한 조각상이 설치된 넓은 산책로가 펼쳐져있다. 쿠알라룸푸르의 무더위를 피하거나 쉬어가기 좋고 볼거리가 많아 현지인에게는 소중한 쉼터로, 관광객에게는 아름다운 관광지로 사랑받고 있다.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 내에 위치한 복합 쇼핑몰 수리아 KLCC와는 후문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 쇼핑 후 산책을 즐기기도 좋다. 공원 내에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와 물놀이장, 수영장 등 편의시설이 곳곳에 마련되어 있다. 일반적인 공원과 달리 밤이 깊어지면 KLCC 공원의 매력은 배가 된다. 공원을 둘러싼 높은 건물들이 불빛으로 화려한 야경을 선사하는 것은 물론, 오후 8시가 되면 심포니 호수에서 아름다운 선율에 맞춰 레이저 분수 쇼가 펼쳐지는 것. 시원한 물줄기와 형형색색의 조명이 쿠알라룸푸르의 밤을 로맨틱하게 물들인다.

찾아가는 법 LRT KLCC역에서 도보 5분



 **호찌민**  
빈궤이 투어리스트 빌리지 Binh Quoi Tourist Village

호찌민에서 사이공 강을 따라 버스로 30분 정도 달리면 녹음이 짙게 우거진 공원이 나타난다. 호찌민 시민들의 평화로운 쉼터 빈궤이 투어리스트 빌리지가 바로 그것. 구역에 따라 빈궤이 1과 빈궤이 2, 빈궤이 3으로 나뉠 만큼 거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복잡한 시내 관광에 지쳤다면 빈궤이 투어리스트 빌리지에 들러보자. 경제도시 호찌민의 화려한 도심을 벗어나 한가로이 산책하거나 데이트하기 좋아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인기가 많다. 특히 호수 위로 나룻배가 떠다니고 사이공 강을 따라 산책길이 길게 뻗어있는 등 아름다운 풍경이 곳곳에 펼쳐져 호찌민 예비부부들의 웨딩 촬영지로도 사랑받고 있다. 울창한 나무 사이로 카페와 레스토랑 등이 자리하고 있어 공원을 둘러보다 쉬어가거나 베트남 전통음식을 맛볼 수도 있다. 주말이면 호찌민 현지인들은 이곳에서 연회를 열거나 가족모임을 갖기도 한다. 리조트 형태로 잘 꾸며진 숙박 시설이 공원 내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물론, 베트남 시장을 재현한 거리 음식이 종류별로 갖춰진 뷔페식 레스토랑이 오픈하기 때문. 레스토랑 내 위치한 방갈로에서 낚시를 즐길 수도 있는데, 이 때 잡은 생선은 바로 요리해 먹을 수 있다.

찾아가는 법 빈탄 버스터미널에서 44번 버스 Binh Quoi 1 역





**가고시마**  
시로야마공원 城山公園

규수 여행의 꽃, 가고시마에 간다면 꼭 들러야 하는 곳이 있다. 바로 가고시마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해 일대 최고의 전망을 자랑하는 시로야마 공원이다. 이곳은 메이지 유신 당시 최후의 격전지였는데, 그 후 역사를 기리고자 1890년 가고시마 최초의 공원으로 조성되었다. 자그마치 130년에 가까운 역사를 지닌 것. 당시의 아픈 기억을 뒤로하고 현재는 가고시마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훌륭한 볼거리와 휴식을 제공하는 명소로 거듭났다. 시로야마 공원에 들어서면 600종이 넘는 식물과 400년 이상 된 나무들이 가득해 마치 식물원에 온 듯한 기분이 든다. 특히 정상 부근에는 산책로를 따라 아열대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 이국적인 분위기도 느낄 수 있다. 다양한 종류의 곤충, 조류 등이 살고 있는 자연생태의 보고이기도 하다. 공원에서 가장 유명한 시로야마 전망대에 서면 가까이엔 가고시마 시가지가 조용히 엮여 있고, 멀리 가고시마 만과 살아있는 화산인 사쿠라지마 섬까지 볼 수 있다. 대도시와 질푸른 바다, 활화산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 이외에도 옛 성터와 신사, 동굴 등 역사 깊은 볼거리가 공원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찾아가는 법 이나기역에서 22번 버스 시로야마공원 역



**울산**  
대왕암공원

대왕암공원은 울산 12경 중 하나로, 아름답고 독특한 풍경을 자랑하는 관광명소다. 기묘한 모양의 거대한 바위가 밀집한 대왕암은 '용이 승천하다 떨어졌다'는 전설이 전해져 '용추암'으로도 불리는데, 실제로 몸부림치는 용과 닮았다. 일반적으로 회색빛의 바위와 달리 대왕암의 바위색은 불그스레해 질푸른 동해 바다색과 대비되어 독특한 풍경을 선사한다. 밤이면 바위와 바위를 잇는 철교가 형형색색의 조명으로 밝혀져 대왕암공원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다. 공원 입구에서 대왕암으로 향하는 길도 매력적이다. 길 양쪽으로 100여 년 된 1만 5000그루의 소나무가 줄지어 있는데, 시원하고 아늑한 그늘을 드리워 천천히 산책하기 좋다. 공원 내에는 용을 형상화한 미끄럼틀을 비롯한 각종 놀이기구가 설치된 미르 놀이터와 그리스 신화 속 크레타 섬의 미로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자연 미로원, 백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한 자리를 지켜온 등대 등 볼거리와 놀거리도 풍부하다. 이색적인 자연 풍경과 각종 시설에 시간가는 줄 모르고 공원을 거닐다 북쪽에 이르면 탁 트인 해안가가 펼쳐져 또 한 번 놀라게 된다. 반달 모양의 백사장이 있는 일산해수욕장으로, 수심이 얇고 경사가 완만해 온 가족이 즐기기에 좋다.

찾아가는 법 울산역에서 5002번 버스 일산해수욕장 역

# 전주의 도전, 한국을 넘어 아시아 문화의 심장으로서



전주시장  
김승수

전주시엔 유명한 것이 많다. 아름답고 맛도 좋은 전통음식 비빔밥을 비롯해 한 해에 1000만 명이 다녀가는 전주한옥마을 등 한국적인 맛과 멋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는 수식어를 붙여도 손색없는 전주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다. 아시아 문화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 TPO와 공동으로 홍보 마케팅을 진행,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에디터 이정화 자료협조 TPO

## 먼저, 전주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전주는 건원이 900년에 후백제의 수도로 삼은 도시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전라도 전 지역과 제주도까지 관할해 전라도의 행정 중심지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최근엔 2010년 국제슬로시티, 2012년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전주는 한국 전통생활양식의 근간인 '한옥·한식·한지' 등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를 담고 있는 도시인 동시에 '아시아 문화의 심장터'라 할 수 있습니다.

## 전주시엔 어떤 관광자원이 있나요?

###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곳을 말씀해주세요.

대표적으로 매년 1000만 명이 방문하는 전주한옥마을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인 남부시장은 청년몰과 아시장으로 유명합니다. 워터스크린과 연꽃이 장관을 이루는 덕진공원과 아중호수도 있어 야간관광과 공연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 국립전주박물관 등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문화시설과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 등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관광 시설에서 전통문화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 지난해 전주시를 방문한 관광객 수와

###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말씀해주세요.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결과, 2016년 전주한옥마을을 방문한 관광객은 하루 평균 2만 9231명, 연간 1066만 94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5년 같은 기간의 965만 3035명보다 100만 명 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19만 4048명이었고, 이중 72%인 13만 9866명이 전주한옥마을을 찾았습니다. 전주시 전체 관광객 소비지출액은 2017년에 7560억 원, 오는 2021년에는 1조 34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1년 전주 방문 관광객 총 소비지출액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면 생산유발효과 1조 897억 원, 소득유발효과 3441억 원, 취업유발효과 1만 1727명, 부가가치유발효과 7693억 원, 세수유발효과 518.9억 원으로 예상합니다.

## 전주시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국제관광전에 매년 참가하며 TPO와 공동으로 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여행자협회(KATA)의 특별회원으로 가입해 관광정보와 관광교류 확대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주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글로벌관광자원화 사업에 선정된 만큼,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기관과 단체를 연계한 프로모션을 활성화하고, MICE와 관련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상품개발 및 운영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도 궁금합니다.**

전주는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는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안착 시켰으며,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글로벌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 등 한국적 관광산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한국적인 미래관광 중심 도시 전주'라는 비전을 갖고 글로벌 관광도시, 관광을 통한 지역 성장, 관광객과 시민이 행복한 관광도시를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TPO에 어떤 활동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TPO가 지금처럼 회원도시의 관광 플랫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시아 태평양지역 관광 활성화에 계속 힘써줬으면 합니다. 해외 공동 관광전 참가와 관광상담회 개최 등 홍보마케팅 사업과 학생여행 교환사업, 회원도시 교류사업 등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하반기에 있을 전주시의 주요 행사와 이벤트를 소개해주세요.**

'전주비빔밥축제'가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열립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음식인 전주비빔밥의 독창성을 강조하는 축제입니다. 이에 앞서 '전주세계소리축제'가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4일 동안 한국소리문화전당과 한옥마을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전주시가 TPO 회원으로서 갖는 의미와 앞으로의 각오, 기구 활동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전주시는 2003년 TPO에 가입한 후 제1회 총회부터 참가했습니다. 특히 2016년 6월에는 10개국 77개 회원도시의 150여 명이 참석한 TPO 포럼을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대표 운영도시로 활동하면서 전통문화 도시답게 한국문화와 관광문화를 선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파리가 '유럽 문화의 심장터'라면 전주는 '아시아 문화 심장터'입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관광을 이끌고 있는 TPO와 손잡고 전주를 '아시아 문화의 심장터'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 2017 한국회원도시 지역회의, 통영에서 열려

2017년도 한국회원도시 지역회의가 15개 한국 회원도시의 실무자 30여 명과 TPO 사무국 직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통영국제음악당에서 2월 23일과 24일 개최됐다. 첫날 본회의는 김동진 통영시장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김동진 시장은 환영사에서 10월에 개최되는 제8회 TPO 총회에 많은 회원도시 대표단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신연성 사무총장은 2016년 TPO 활동보고와 2017년도 TPO 활동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본회의가 끝난 뒤 참가자들을 위한 특별 초청강연이 마련됐다. 통영시 관광 마케팅과 천명애 씨는 한국 정부가 선정하는 '올해의 관광도시 통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의 관광도시 시책'에 대한 주제로 강연했고, 순대현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명예교수 겸 한국슬로시티본부 이사장은 '주객간의 상호작용을 꽃피움: 민관 협력 방안'이란 주제로 강연해 참가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관광 자원 개발'을 주제로 통영시 관광자원을 시찰했다.



### 통영시와 TPO사무국 활발한 총회 홍보활동 펼쳐

통영시와 TPO사무국이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한국 통영시에서 열리는 제8회 TPO총회의 성공을 위해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3월에 통영시 김상영 해양관광국장과 TPO사무국 조달려 기획총괄부장 일행이 한국의 경상북도 지역 회원도시를, 5월에는 전라북도 지역의 회원도시들을 예방하며 총회관련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와 별도로 통영시는 지난 5월 6일, 통영에서 개최된 제24회 바다축제 행사장에 TPO총회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총회관련 홍보책자 및 TPO회원도시들의 관광지도와 각종 안내책자 등을 전시했다. 한편 김동진 통영시장과 신연성 TPO사무총장 일행이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중국의 주요 회원도시를 방문하여 시장들의 총회 참석을 요청했다. 회장도시인 광주광역시 왕동(王) 부시장 면담에서 김동진 시장은 그동안 TPO총회에서 다룬 의제와 이번 총회에서 다룰 의제를 논의했으며, 제8회 총회가 갖는 의미와 방향성을 설명하는 계기로 삼았다. 포산시와 사오관시에서도 총회 주제인 '도시 브랜드와 관광'과 관련해 논의를 하며 유사한 특색을 가진 도시를 테마별로 묶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관광분야 교류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통영시는 음악도시 브랜드를 활용해 총회기간 중 음악회를 개최하고 향후 음악을 통해 관광객을 상호 유치하는 행사를 위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영시는 기존 도시회원들에게는 유사한 테마를 가진 도시간 실질적인 교류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최근 가입한 회원도시에는 관광자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 기획을 제공했다.



## 베트남 호찌민시, TPO 한국회원도시 예방 및 MOU 체결

베트남 호찌민시 인민위원장은 110여 명의 대규모 방문단을 이끌고 5월 15일부터 22일까지 한국을 방문했다. 방문단은 대외협력, 통상무역, 관광 등 호찌민시의 10개 분야 국장급 공식방문단과 경제사절단, 공연단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한국의 인천, 경주, 부산 등을 예방하며 도시간 전략산업과 투자·통상·관광 등 상호협력 및 교류증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베트남 호찌민시 응웬 탄 풍(Nguyen Thanh Phong) 인민위원장은 16일 유정복 인천시장을 예방해 양 도시간 우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한 호찌민 투자무역진흥공사는 인천 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와 상호 경제교류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신규 전시회를 통한 저비용·고효율 전시산업 지원, 중소기업 제품전시장 공간 및 현지 바이어 교류, 정기적 경제교류와 인력교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호찌민시 방문단은 이후 5월 19일과 20일 경주를 방문, '호찌민-경주 세계문화엑스포2017' 실행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호찌민-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7'은 '문화 교류를 통한 아시아 공동 번영'을 주제로 11월 9일부터 12월 3일까지 호찌민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호찌민·경주·경상북도 간 MOU가 체결된 20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원에서 '2017 호찌민의 날 인(in) 경주'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의 미리보기 축소판으로, 베트남의 전통 춤·무술·음악 공연과 전통의상 아오자이 체험, 전통 음식 시식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호찌민시 인민위원장 일행은 21일과 22일, 마지막 방문지인 부산시를 찾았다. 방문단은 부산·경남 베트남 명예총영사관을 방문해 박수관 명예총영사를 만나 두 도시간 교류와 협력증진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박수관 명예총영사는 "베트남에 진출한 부산 경남 기업에 대한 응웬 탄 풍 인민위원장의 관심과 지원, 협력에 감사드리며 아직 호찌민과 부산 간 교통환경이 미비해 부산·경남 기업인들의 방문에 어려움이 있으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응웬 탄 풍 위원장은 "최근 호찌민시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도시 인프라 구축이 아직 성장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 외국 투자 기업에 불편을 끼치는 상황인데, 앞으로 두 도시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수관 명예총영사가 마련한 환영만찬회에 참석해 백종현 부산시의회 의장과 조성제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지역 기관 및 단체장, 기업인 등과 교류 및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22일에는 부산 해운대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응웬 탄 풍 호찌민 인민위원장과 부산시 서병수 시장은 '베트남 호찌민시와 부산시의 도시철도 건설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17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안동, 한국 | 9월 29일~10월 8일

장소 탈춤공원, 문화의 거리 등 안동시내 일원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4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선정한 ‘2017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9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개최된다. 안동은 시대별로 편중되지 않고, 종교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문화가 온전히 전승되어온 지역. 한국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동양의 미학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이번 탈춤 축제는 안동의 문화를 답사하면서 축제의 신명을 함께 즐기는 것으로 이뤄질 계획. 국내외 탈춤 공연과 미당극, 경연 대회, 미술 대전, 퍼레이드, 탈춤 배우기, 세계 탈 전시회 등 80여 개의 부대행사가 다채롭게 개최된다.



2017 생태 교통 축제

까오슝, 대만 | 10월 1~31일

장소 하마센 철도문화단지

까오슝 시정부와 세계지방정부(ICLEI)가 공동 개최하는 ‘제3회 2017 생태 교통 축제’가 10월부터 한 달간 열린다. 이번 축제에선 생태 교통 세계 대회, 저탄소 운송 수단, 환경 교육 전람회, 현지 인문학 강연 등의 행사가 진행될 계획. 다양한 행사를 통해 시민과 방문객들은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친환경 저탄소 교통 수단을 체험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http://www.ecomobilityfestival2017.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겐페이 나이트

시모노세키, 일본 |

10월 7, 14, 21, 28일 20:00~21:20

장소 아카마 신궁

아카마 신궁에서 4일간 열리는 가을 조명 축제. 반짝 반짝 빛나는 신궁 경내를 무대로 이색적인 엔터테인먼트가 펼쳐진다. 시모노세키에서 일어난 사건을 뮤지컬로 재현한 공연은 물론, 화려한 전통의상을 입고 춤추는 일본 전통 무용, 예로부터 시모노세키에 전해 온 전통 북 헤이케다이코 연주 등이 여기서만 구경할 수 있는 볼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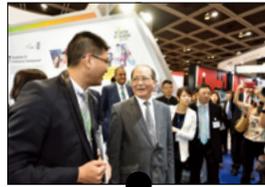
월드디닥 아시아

(Worlddidac Asia) 2017

방콕, 태국 10월 10~12일

장소 태국 방콕 퀸 시리킵 내셔널 컨벤션 센터

‘월드디닥 아시아 2017’은 새로운 글로벌 사업 기회 창출을 위한 아시아의 대표적인 교육 기자재 박람회.



전 세계 유수의 제조사가 한데 모여 다양한 신제품과 신기술을 아시아 전역에 선보인다. 폭 넓은 분야에서 교육용 혁신 제품을 둘러볼 수 있는 건 물론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과 기관들의 활발한 참여가 기대된다. 여러 교육 기관과 NGO, 사립 및 공립 학교 의사 결정권자들과 딜러, 오피니언 리더들도 이번 행사에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농업 주간

이르쿠츠크, 러시아 | 10월 17~20일

장소 러시아 이르쿠츠크 십익스포센터

러시아 이르쿠츠크 시에서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 간 농업 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농업 주간’은 지난 22년 간 식품 제조사들을 위한 권위 있는 행사로 자리 매김해왔다. 특히 인가라 지역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행사로 참여율도 높다. 농업과 식품생산 분야의 성과를 한 눈에 돌아볼 수 있어 흥미롭다. 이번 ‘제23회 농업 주간’은 수확철이 마무리된 후 이르쿠츠크 지역의 농업업과 식품 생산가공업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규모 축제의 장을 열 예정이다.



2017 제5회

상하이 관광, 양로, 부동산 박람회

상하이, 중국 | 10월 20~22일

장소 상하이 에버브라이트 컨벤션 센터

‘2017 제5회 상하이 관광, 양로, 부동산 박람회’가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상하이 에버브라이트 컨벤션 센터(Everbright Convention & Exhibition Center)에서 개최된다. 전시 규모는 무려 1.2만㎡로 유명 부동산 업체 100여 곳 이상이 참여해 최고 수준의 관광, 요양, 부동산 관련 사업을 소개한다. 향후 이번 박람회는 중국에서 지명도가 가장 높은 관광, 부동산 사업 마케팅, 홍보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리라 기대된다.



고래와 함께 떠나는 특별한 여행

울산 남구, 한국 | 10월 28~29일

장소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울산 남구는 오는 가을 여행 주간(10월 21일부터 11월 5일)에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일원에서 ‘고래와 함께 떠나는 특별한 여행’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여행 주간엔 ‘휴일 없는 고래특구’를 운영해 장생포 고래박물관과 생태체험관 입장료를 30% 할인하고, 숙박 시설(롯데호텔, 롯데시티호텔), 음식점(만리장성, 신생원, 원가계, 거피애광), 공연(CK아트홀) 등의 할인 서비스를 아낌없이 제공할 계획. 10월 28일, 29일 이틀간은 고래문화마을에서 특별 이벤트 무대를 열어 요일별 테마 공연을 비롯해 어린이를 위한 체험 활동, 현장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반짝임-옷칠,  
도금 목공예 컬렉션 특별 전시**

**하노이, 베트남 | 6월 20일~11월 30일**

**장소** 베트남 하노이 국립역사박물관

베트남 국립역사박물관은 '반짝임-옷칠, 도금 목공예 컬렉션'을 개최한다. 레 왕조에서 응우옌 왕조에 이르는 시기에 제작된 다양한 조각품과 베트남의 신성한 신화 속 동물들을 담아낸 물건들로 약 100점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 이 귀한 예술품이 대중에게 전격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베트남의 대다수 농업 도시에선 목공업을 부수적인 산업으로 삼아 주택, 탁, 조각, 장식품의 건설과 제작에 관여한다. 목공예 예술가들은 일상생활과 종교적인 의식을 위해 예술품을 제작해 베트남 전통문화의 정수로 자리 잡아왔다. 이번 특별 전시는 6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베트남 국립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된다.



**거제섬 꽃 축제**

**거제, 한국 | 10월 28일~11월 5일**

**장소** 거제 농업개발원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거제섬 꽃 축제'는 꽃과 문화, 사람이 어우러진 가을꽃 축제. '시민이 만드는 축제'란 슬로건 아래 가을꽃의 향연, 우리 농업 둘러보기,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 공연, 각종 경연, 체험 행사 등 6개 분야에서 60여 종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거제시 농업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행사로 160개 단체(2,000명)가 참여하며 매년 20만 명의 관람객이 찾고 있다.



**제66회 오히라 축제**

**가고시마, 일본 | 11월 2~3일**

**장소** 가고시마 일대

1949년부터 시작된 가고시마 대표 축제이자 남규슈 최대 가을 축제로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오히라 축제'는 가고시마 시민 약 2만 5000명이 춤 행진에 참여해 색다른 볼거리를 선보인다. 특히 가고시마 최대 변화가인 덴몬칸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이 민요 '오히라부시'에 맞춰 춤추는 모습은 놓칠 수 없는 장관. 춤 행진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 일본의 전통 축제를 흥겹게 만끽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  
도시 탈출 페스티벌 (MURFEST)**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 11월 3~5일**

**장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르 메디앙 푸트라자야

'말레이시아 도시 탈출 페스티벌(MURFEST)'은 웰빙과 음악, 춤이 결합된 개성 있는 축제. 3일간 지속되는 행사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80팀 이상의 뮤지션과 아티스트들이 모여든다. '말레이시아 도시 탈출 페스티벌(MURFEST)'은 건강한 신체는 물론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기르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청년과 미래 세대,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건강과 웰빙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려 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인종과 종교를 떠나 누구나 참여해 마음껏 즐길 수 있다.



**2017 중국(정저우)  
국제 노령 산업 박람회**

**허난, 정저우 | 11월 24~26일**

**장소** 정저우 국제회의센터

2010년 첫 발을 내딛은 '중국(정저우) 국제 노령 산업 박람회'는 그간 꾸준히 성장해왔다. 양로 여행, 건강식품, 첨단 의료, 스마트 서비스 등 전 세계 노령 산업의 분야별 최신 기술과 제품, 솔루션을 한데 모아 산업 발전의 트렌드를 선보였다. 이번 '제7회 중국(정저우) 국제 노령 산업 박람회'는 유통 채널의 변화와 산업 발전에 초점을 맞춰 노령 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그릴 계획이다.



**오사카 마라톤 2017**

**오사카, 일본 | 11월 26일**

**장소** 일본 오사카 캐슬 파크

'오사카 마라톤'은 국내외에서 약 3만 2천명이 모여드는 도심 마라톤 행사. 오사카의 주요 랜드마크인 오사카 성, 도톤보리 운하, 미도스지 도로를 지나 코스로 짜여 있으며, 근처 유동 인구가 많아 130만 명에 달하는 관중이 몰린다. 자선 행사로 개최되며 매년 한층 더 커진 규모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행사 기간 동안 오사카에선 마라톤과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는 건 물론, 쇼핑을 하거나 가무쿠 '노', 희극 '교겐', 연극 '가부키', 인형극 '분라쿠' 등 다양한 전통 공연 예술을 경험할 수 있다.



신라 문화제

경주, 한국 | 10월 6일~12월 3일

장소 예술의전당, 서라벌문화회관,

불국사 등 경주 일원

경주에서 열리는 지역 대표 문화 행사, '신라 문화제'가 10월 6일부터 12월 3일까지 예술의전당, 서라벌문화회관, 불국사 등 경주 일원에서 개최된다. '신라 문화제'는 신라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역사문화 체험 축제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관광 도시 경주의 비전을 제시한다. 경주 시민의 대화합은 물론 천년 문화유산을 가진 경주의 이미지를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널리 전할 계획이다.



2017 타이난 관쯔링 온천 미식 축제

타이난, 대만 | 10월~12월

장소 타이난시 관쯔링 일대

'2017 타이난 관쯔링 온천 미식 축제'는 진흙 온천, 화왕예(火王爺) 순행 야간 축제, 꼭 맛봐야 할 개성 만점 요리, 온천 목욕 가운 체험, 일루미네이션 등 독특한 오감만족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 관쯔링 온천 지대의 특색을 창의적으로 활용해 관쯔링 여행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관쯔링 지역의 관광 산업을 부흥시킬 계획이다.



2017 고쿠라 일루미네이션

기타쿠슈, 일본 | 11월 상순~2018년 1월 중순

장소 JR 고쿠라역 및 무라시키강 일대

동계와 연말연시 기간에 맞춰 개최되는 '2017 고쿠라 일루미네이션'.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한 행사로 일본 야경유산에 등록되기도 했다. 세계유산의 영상을 투영한 영상 터널과 '세계 절경 10'에 선정된 카와치 등나무 공원의 등나무 터널을 형상화한 터널, 무라시키가와 강으로 흘러들어오는 폭포를 이미지화한 폴링 일루미네이션 등이 볼거리. 매일 저녁 5시부터 10시까지 일제히 점등된다.



2017 청두 국제 여행 박람회

청두, 중국 | 11월 30일~12월 2일

장소 청두 세기성신 국제 컨벤션 센터

청두 국제 여행 박람회(CITE)는 중국 서부의 대규모 여행 박람회로 청두 여유국과 전시국의 큰 지원을 받고 있다. 여행사와 여행 애호가들을 연결하는 거대한 플랫폼으로 관광 산업의 성대한 잔치라고도 할 수 있다. 여행 애호가들에게 권위 있고 믿을 수 있는 여행 노선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비자들은 박람회를 통해 여행 플랜을 세우고 우수한 여행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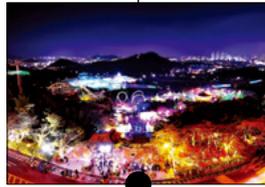
디자카르타

웨어하우스 프로젝트 2017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 12월 15~16일

장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엑스포센터

'디자카르타 웨어하우스 프로젝트'는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대규모 일렉트로닉 뮤직 페스티벌. 이틀 간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엑스포센터에서 글로벌 슈퍼스타들의 신나는 음악의 향연이 펼쳐진다. EDM, 하우스, 테크노 음악을 메인으로 마틴 게릭스, 악스웰 앤 잉그로스, 니키 로메로 등 수많은 DJ가 분위기를 뜨겁게 달군다. 화려한 무대 연출과 조명 등이 한순간도 눈을 땔 수 없는 엄청난 볼거리를 선사한다.



이월드 별빛 축제

대구, 한국 | 11월 19일~12월 31일

장소 대구 이월드, 83타워 일대

2017년 '이월드 별빛 축제'의 테마는 10만 송이 LED 장미. 830만 개의 별빛이 수를 놓으며 한국 최고의 명품 별 테마 축제를 선보인다. 대구 대표 테마파크 이월드와 경북의 랜드마크 83타워에선 아름다운 전망과 야경을 함께 즐길 수 있다. 화려한 불꽃 쇼와 83가지 별빛 포토존, 이색적인 체험거리 등을 결코 놓치지 말자.



제9회 부산

크리스마스트리 문화 축제

부산 중구, 한국 |

2017년 12월 2일~2018년 1월 7일

장소 광복로 및 광복중앙로 일원

'온 누리에 사랑의 빛'을 주제로 부산 광복로에서 9번째 크리스마스트리 축제를 개최한다. 국내외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추억과 희망의 메시지를 선사할 계획. 화려한 불빛으로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축제의 장이 뜨겁게 펼쳐진다.

# TPO Members

81 city members, 40 industry members

## CITY MEMBERS

### CHINA

Chengdu Weihai  
Qingyuan Yantai  
Dalian Zhangjiajie  
Foshan Zhaoqing  
Guangzhou Zhengzhou  
Hangzhou Liupanshui  
Qingdao  
Sanya  
Shanghai  
Shaoguan  
Shenyang  
Suzhou  
Tianjin  
Urumqi

### CHINESE TAIPEI

Kaohsiung  
Taichung  
Tainan

### THAILAND

Bangkok

### VIETNAM

Danang  
Hai Phong  
Hanoi  
Ho Chi Minh

### MALAYSIA

Georgetown  
Ipoh  
Kota Bharu  
Kota Kinabalu  
Kuala Lumpur  
Melaka  
Taiping

### INDONESIA

Jakarta  
Surabaya  
Yogyakarta  
Bitung

### PHILIPPINES

Manila

### KOREA

Andong  
Busan  
Busan Haeundae-gu  
Busan Jung-gu  
Buyeo-gun  
Changwon  
Chuncheon  
Daegu  
Daegu Jung-gu  
Daejeon  
Donghae  
Gangneung  
Geoje  
Gimhae  
Goyang

### RUSSIA

Vladivostok  
Irkutsk

### JAPAN

Fukuoka  
Kagoshima  
Kitakyushu  
Kumamoto  
Miyazaki  
Osaka  
Shimonoseki  
Takeo

## INDUSTRY MEMBERS

### CHINA

Guangzhou Garden Hotel  
Guangzhou Star Cruises Co., Ltd.  
GZL International Travel Service Ltd.  
Shandong Channel International Travel Service Co., Ltd.  
China Travel international (Xinjiang) Ltd.  
China Comfort Xi'an International Travel Service Co., Ltd.  
Dalian Gulian International Travel Service  
CITS Guangdong  
China Travel Internantional Sanya Co., Ltd.  
Hainan Gaoli Holiday Travel Service Co.,Ltd

### JAPAN

Kagoshima Convention & Visitors Bureau  
Fukuoka Convention & Visitors Bureau  
JTB Corp. Fukuoka Office

### KOREA

BEXCO  
Busan Tourism Association  
Arum Travel Service Co., Ltd.  
Cheongsong Travel Service Co., Ltd.  
Road ABC Media Co., Ltd.  
TourJapan Co., Ltd.  
Intravel Ltd.  
Haeundae Centum Hotel  
Daegu Tourism Association  
Lee Convention  
Busan Tourism High School  
The Korea Academic Society of Tourism and Leisure  
Solar Travel Agency  
BS FunTour  
Benikea Jeonju Hansung Tourist Hotel  
Sky Tour  
JB Tour  
PANWORLD Dream  
Tour Fun Co., Ltd.  
Wolseong E&C

### MALAYSIA

Taiping Tourist Association

### MONGOLIA

Ancient Nomads Tour Agency

### RUSSIA

Gavan Tour-center Co. Ltd

### U.S.A

MCM Group Holdings Ltd.

### VIETNAM

Haiphong Vanhoa One Member Limited Corporation  
Haiphong Vocational College of Tourism

### KOREA

TourFun Co.,Ltd.

### INDIA

Abroader Consultancy India Pvt. Ltd.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TPO Contact Information**

Address. TPO Secretariat, 8th Floor of Kolong Building, No.480 Suyeong-ro, Suyeong-gu, Busan 48314,

TEL. +82-51-502-2984~7 FAX. +82-51-502-1968

E-mail. secretariat @ aptpo.org

Web Site. [http: www.aptpo.org](http://www.aptpo.org)